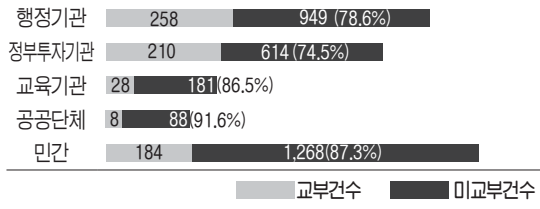


공공기관 '하도급 지급보증' 외면

광주 지자체 등 보증서 교부 22% 불과 저가 하도급·장기어음 발행 등 일삼아

■ 광주지역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광주지역 공공기관 발주 공사 10건 가운데 8건 가량에서 하도급 업체에 의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급사들이 공공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류를 제출한 뒤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이를 취소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4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지역 4000만원 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 3788건 가운데 하도급업체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건수는 전체 하도급 건수의 18%인 688건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 건설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들도 보증서 교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공사 1207건(5203억원) 중 78.6% (949건, 3409억원)를, 정부투자기관 824건(5789억원) 중 74.5%(614건, 3945억원), 교육기관 209건(492억원) 중 86.6%(181건, 425억원), 공공단체 96건(339억원) 중 91.6%(88건, 329억원)를 교부하지 않았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원도급사의 경우 공공기관에는 보증서 교부 서류를 제출한 뒤 곧바로 공제조합에 이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 중견건설사 5곳 구조조정 여파

하도급 물량 2조 감소 우려

광주·전남 '빅3'을 포함해 주요 건설사 5곳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도급 수주 물량이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9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린 '건설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지급보증서 수수료가 계약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이를 부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행정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사를 발주한 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만 꾸며놓고 실제는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원도급업체인 일부 종합 및 주택건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가 하도급과 장기어음 발행 등을 일삼아 하도급 공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공사 어음 수령 실태 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어음을 수령한 하도급대금 1872억원 중 46%인 856억원이 법정 지급기일을 지난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서 전문업체의 경영압박 각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대물 수령액도 13억원에 달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사를 발주한 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만 꾸며놓고 실제는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행정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건설사의 5년간 평균 매출은 3조8760억원으로, 이중 금호산업이 55%에 달하는 2조1240억원을 차지했고, 남양건설 8210억원, 금광기업 4680억원, 대주건설 3500억원, 삼성건설 1130억원 등이었다.

이들 건설사가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으로 공급한 금액은 전체의 70% 규모인 2조7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중견건설사 5곳 구조조정 여파

법원 "북구청 대형마트 막을 이유없다"

업체 '건축허가신청 불허 가져분 취소' 항소심 승소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9일 S사가 광주시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 가져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의 갖춤 신청인에 대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건축법상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항소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불허처분은 지역 영세상인과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S사는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4000여㎡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지난 2월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도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대자본의 횡포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600만 중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청소도 하고 집도 지켜주고

삼성광주전자 영상보안 로봇청소기 출시

삼성광주전자가 청소는 물론 집까지 지켜주는 신개념 로봇청소기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9일 삼성광주전자의 가전 기술과 보안업체 에스윈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영상보안 로봇청소기(VC-PL62W·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 영상보안 로봇청소기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로봇청소기 '탱고'에 에스윈의 첨단 영상감시기술을 탑재한 것으로, '움직이는 CCTV' 또는 '보안 청소기'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가진 신기술 복합 상품이다.



사용자는 외부에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봇청소기를 조종할 수 있으며,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 구성구석을 실시간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출고가는 79만9000원이다.

지역 중견건설사 5곳 구조조정 여파



전경련, 대기업-중소 상생방안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 재계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 윤 삼양사 회장, 최용권 삼한기업 회장, 허창수 GS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영주 이건설 회장, 강덕수 STX 회장, 신동민 롯데 부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광양제철 후판공장 오늘 본격 가동

하루 1200t 생산 ... 내주중 완제품 첫 출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이 1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테스트용 제품 생산을 시작한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완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생산량은 하루 1200t 규모이며, 주문에 따라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첫 완제품은 선박용 후판으로 다음주에 출고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연말께 포스코는 후판생산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 1위는 일본의 NSC와 스키토모 제철소로 연간 54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는 기존 포항제철소 500만톤에 광양제철소 200만톤을 합쳐 700만톤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고,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서 연말까지 140일간 하루 평균 3000t을 생산한다면 세계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은 총 1조 8000억원을 들여 제철소 내 하이밀공

장 인근 38만㎡(11만5151평) 부지에 세워졌다.

지난 2008년 첫 삼을 때 제강공장(240만t)·후판공장 등을 건립, 2년1개월여만에 모든 생산라인을 마무리한 뒤 지난달 말부터 테스트용 제품을 생산해왔다.

이 공장은 올해 연간 200만t, 하루 5500t 규모의 후판을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50만t을 늘려 연간 250만t, 하루 6800t 규모로 증산할 계획이다. 연 매출은 2조2000억원 상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중견건설사 5곳 구조조정 여파

LH, U대회發 전세대란 막는다

임대주택 9500가구 공급 등 해소 대책 마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가 'U대회(發) 전세 대란' 해소에 적극 나선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앞두고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LH 광주·전남본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을 겨냥해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한 것.

LH 광주·전남본부는 9일 "U대회를 앞두고 2900가구의 화정 주공아파트와 1118가구의 영주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전세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95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9월 양동지구에 5년임대 716가구, 10월 수완지구에 국민임대 1942가구 등 총 2658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주가 집중되는 2011년에는 백운지구 5년임대 838가구와 학2지구 5년

임대 794가구의 집들이가 가능하다. 내년 10월과 11월 입주 예정인 이들 지구는 U대회 선수촌 예정지구인 화정·영주 주공아파트의 입주 시기와 맞아떨어져 전세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심 내에 위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5년임대 주택으로 제테크 효과도 기대돼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학2 지구는 전용면적 74, 84, 108㎡를 공급하며 85㎡이하 주택의 경우 광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85㎡초과 주택의 경우 광주시 거주 만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국민임대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297만 원 이하인 소득요건 등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문의 062-380-0400~1.

지역 중견건설사 5곳 구조조정 여파

LG-협력회사

상생협력 체결

LG가 협력회사를 '성장 파트너'로 적극 육성키로 하고 2000여개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LG는 9일 서초구 양재동 LG전자 서초R&D센터에서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유플러스·LG CNS·LG엔시스 등 9개 계열사와 100여개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LG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가졌다.

지역 중견건설사 5곳 구조조정 여파

코스피지수	1,784.36 (+5.14)
코스닥지수	481.86 (+3.26)
금리 (국고채 3년)	3.35% (-0.26)
원·달러 환율	1,167.40원 (-5.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전남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가발 50만원

스킬과 맘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지금껏 소비자가 기다려 왔던 옥상방수 공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의 7가지 특징

- 방수 뿐 아니라 뛰어난 단열기능 까지 들어있습니다.
- 보행성이 탁월하고 옥상바닥 소음을 없애줍니다.
- 이중방수 효과로 견고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합니다.
- 시공바닥면의 진행성 크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열에 강해서 태양열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 계절과 상관없는 전천후 시공이며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선진국형 친환경 방수 시스템입니다. [특허 제 10-0562035호]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사 (061)284-0485 순천지사 (061)726-0482

여수지사 (061)683-0485 광양지사 (061)795-0485

(062)511-0444, 010.6603.0405